

빛의 예술가인 바로 이렇듯 프랑스 국립박물관협회에서 엄선한 작품만 전시하는 그랑 팔레(Grand Palais)의 2006년 재개관에 맞춰 티에리 드레무스가 고안하였다.



**건물들이 붉게 물든다** 지난봄 로테르담의 NAI(네덜란드 국립건축협회)에서 주최한 〈밤의 건축 : 발광하는 건물들(Architecture of the Night : Luminous Buildings)〉 전시회는 현대 건축물은 조명을 통해 존재한다는 자각으로 시작되었다. 도시의 중심가를 비추는 빛나는 물체들은 수없이 다양하다. 내부를 비추는 형형색색의 빛을 머금고 있거나 그래픽으로 장식된 건물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붉게 물든다. 건축가들은 일상에서 그 자체가 빛이 되는 새로운 '표면' 혹은 가공된 외관을 고안해내는 재능을 거두고 있다. 가장 강렬한 욕망의 대상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기술의 발달로 건물 표면을 전부 물들이는 빛은 어제의 이상들을 순식간에 현실로 만든다. 새로운 기법은 밤의 신화를 벗겨버리고, 건물을 미광으로 물들이 형태를 부여한다. 700만 개의 LED 다이오드로 평행하게 구성된 도쿄 긴자의 샤넬 빌딩은 이스라엘의 예술가 미카엘 로브너의 작품을 재해석한 피터 마리노의 아이디어였다. 벤 반 베르켈의 유엔스튜디오가 고안한 서울의 갤러리아 백화점에도 이와 동일한 기법으로 빛의 요소들이 병렬로 배치되어 있다. 갤러리아 백화점은 4330가지 무지갯빛의 영롱한 유리 디스크들이 그날의 기상 상태에 따라 다른 빛을 띤다. 변화무쌍한 표면은 결코 반복되지 않는다.

또 다른 건축가들은 빛을 건물의 구성 요소, 즉 새로운 재료로 통합시켰다. 스페인의 산티아고 칼라트라바가 그런 경우로 그는 빛을 통해 입체감을 '조각'했다. 주변의 물에 반사된 빛은 대칭적으로 가공의 건물을 만들어낸다. 빛의 건물이 이끄는 밤은 낮을 사라지게 한다. 빛의 예술가 티에리 드레퀴스는 "건물은 밤에 보이는 외양과 낮에 보이는 외양이 구분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과연 그랑 팔레가 재개관했을 때 방문객들은 빛으로 물든 무대 장식들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 기준을 규정짓지 않음으로써 건축물이 진가를 발휘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반대로 건축가 폴 앙드리의 작품인 베이징 국립대극장은 미광으로 뒤섞여 있다. 대극장은 유리 돔으로 둘러싸여 연못에 떠 있는 거품처럼 보이는 낮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 대극장은 마주 보고 있는 인민대회당에 투영된 강렬한 빛과 대조를 이루는 은은한 빛이 흥미롭다. 대극장은 물 위를 수놓은 별들로 인해 그 규모를 가늠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마치 한밤의 꿈처럼... 에디터 | 정석현

